

경제

주간 증시 포커스

1800~1900선 등락 기회로 활용 산업재·소재업종 초과 수익 기대

바닥을 확인한 후에도 제한된 주가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1780pt에서 강한 지지력이 나타나며 1차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피는 또 다시 1850pt의 저항선에 막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이제 스페인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중국은 유럽사태에 따른 자국 내 경기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0.25%의 기준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버냉키 연준의장도 필요할 경우 경기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머징 주국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함께 글로벌 정책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는 등 유로존 리스크가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도 선진국 중심의 정책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이 아닌 중국·유럽 등의 완화 통화정책 공조현상 속에 미국의 드라이브 시선 도래, 대졸태도 완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감안할 때 그리스의 2차 총선, EU 재무장관회의, EU 정상회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여수엑스포와 동행... '글로벌 광주은행'으로

엑스포 출장소 개설 매일 외국인 50명 환전

250여 입주업체·국제관 50여개국 금융관리



10일 여수엑스포박람회장 광주은행 출장소를 찾은 외국인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차동민 광주은행 여수엑스포 출장소 소장은 "출장소 직원들은 매일 3시간 연장근무를 통해 여수엑스포 중



종이로 만든 '트랜스포머' 지난 9일 (주)광주신세계가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기념해 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진행한 어린이 아트클래스에서 어린이들이 '페이퍼 트랜스포머' 만들기를 하고 있다. 백화점은 1층 갤러리에서 '버릴 것 하나 없는' 전시를 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은행 6곳으로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투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카드사 연체 늘고 순익 줄었다

체크카드 실적은 23% ↑

올해 1분기 들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순익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내놓은 '2012년 1분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3월 말 전업카드사(KB국민카드 포함)의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2.09%로 전년 말(1.91%)에 비해 0.18%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 연체율은 1.05%로 전년 말(0.96%)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0.22%포인트 오른 2.91%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채권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며 올해 들어 뚜렷해진 경기둔화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업카드사(KB국민카드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3408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4664억원)보다 1256억원(26.9%)이나 감소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카드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1323억원) 늘어나는데 그

친 반면에 카드비용은 10.1%(2235억원)나 늘었다.

금감원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연체율 상승과 그에 따른 수익의 증가세 둔화, 대손비용 증가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매매이익(4394억원)을 포함하면 1분기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780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3%나 늘어난다.

그러나 주식매매이익은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올해 3월말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6.2%로 대체로 양호했다.

또 전체 카드사의 자산은 76조8000억원으로 전년말(79조7000억원)에 비해 3.6%(2조9000억원) 감소했다. 연초에는 지출을 줄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판매자산이 줄었고, 금융감독 당국의 외환확대 억제 유도도 카드대출자산도 줄었기 때문이다.

말에 비해 351만장(3.9%)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나 늘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JAU Travel Agency (자유투어)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s, and special offers for different regions like Jeju, Gyeonggi, and Jeonnam.